

< 동정자료 >

김현미 장관, “한-네덜란드 스마트시티 등 협력 본격화 기대” 14일 주한 네덜란드 대사 만나 사회주택, 제로에너지건축 등 협력방안 논의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(목), 작년 11월 새로이 부임한 요아나 돌너왈드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만나 양국간 스마트시티, 사회주택, 제로에너지 건축 등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- 김 장관은 작년 7월,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한 후 정부간·기업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,
 - 제로에너지 건축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측의 양국 공동 포럼, 기업 네트워킹 미팅 등의 개최 제안을 환영했다.
 - 또한 한국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9%까지 올릴 계획으로,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에 있어 공공부문 외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택 선도국가인 네덜란드 사례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- 네덜란드 대사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스마트시티, 제로에너지건축, 사회주택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했고,
 - 특히 “김현미 장관께서 용산공원 조성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, 시민들이 오랜 기간 참여해서 만들어나가는 네덜란드의 대표 자연생태공원인 ‘막시마 파크’가 좋은 사례가 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2020. 2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